

후속 마무리 대화 : <나오미-룻>

룻기 2장 17-23절 말씀

상황

- 17 ○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
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
- 18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
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
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

대화(1)

- 19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
오늘 어디서 주웠느냐?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?
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

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
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

대화(2)

- 20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
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
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
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
-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
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
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
- 21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
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
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
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

대화(3)

- 22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
내 딸아
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
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
- 23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
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
이삭을 주우며
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